

월경하는 대중음악 경험과 다층적 정체성 실천

- 사할린 영구귀국자의 트로트와 민족적, 국민적, 초국가적 상상력 -*

조일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

1. 들어가며

1.1. 2014년 2월

1.2. 2017년 5월

2. 월경하는 미디어와 정체성 정치

2.1. 디아스포라와 미디어

2.2. 사할린으로, 다시 사할린 밖으로, 그들의 역사

2.3. 전파월경과 정체성 정치

3. 월경하는 라디오와 '창가노트'

3.1. 월경하는 미디어 경험의 추적, '창가노트'

3.2. 외부에 대한 상상을 연행하는 '창가노트'

3.3. 민족정체성과 국경 밖에 대한 상상력

4. 나오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3038716).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평과 학술적 지지를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사할린 출신 영구귀국자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에서 드러난 냉전 시기 월경하는 한국의 라디오 전파를 통해 대중음악 청취 경험이 형성한 정체성 정치와 국경 밖에 대한 상상력의 의미를 분석한다. 사할린 한인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사할린에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다. 1945년 일제의 패망 이후, 이들은 무국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한반도로 돌아가지 못한 채 소비에트의 주민이 되었다. 냉전 시기 동안 한국과 소비에트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도 이뤄지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선택한 1세대 사할린 한인 동포 중 상당수는 월경하는 라디오 전파를 통해 한국의 대중음악을 들었던 경험을 토로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 한국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일은 사할린 동포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이 행위를 통해 소비에트 국경 밖 다른 세계인 상상의 고향-한국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밤에만 희미하게 청취할 수 있던 한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해진 노래는 언제나 부분적이었다. 사할린 한인들은 파편화 된 가사와 가락을 조합하여 곡을 기록했고, 이를 함께 부르는 과정에서 집합적인 정동을 경험했다. 당시 이들이 즐겨들었던 한국의 음악은 트로트였고, 이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 사할린 한인 사이에서 향유되던 음악과 닮아있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한국어 가사 노래를 함께 부르며 형성된 민족정체성은 실제적 한국을 의미하기보다 상상의 것에 가까웠고, 따라서 소비에트 국민정체성과 상치되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이 시절에 부르던 노래를 향유하고 있다. 이제 이 노래 실천은 소비에트에서 보냈던 젊은 시절의 성취와 추억과 연결되어 있다.

핵심어: 사할린 영구귀국자, 정체성, 전파월경, 라디오, 트로트 음악, 상상력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필자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각기 다른 공동연구 프로젝트들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온 A시의 사할린 영구귀국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발견한 특별한 한국 대중음악 경험, 그로 인해 형성된 정체성 정치, 국경 밖¹⁾에 대한 상상력의 의미를 사할린에서의, 또 영구귀국 후의 삶의 맥락 속에서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비)자발적으로 가라후토(사할린의 일본식 지명)으로 이주했던 한반도 출신 주민 다수는 1945년 일제의 패망 이후에도 한반도로 돌아오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패망 즉시 조선인의 지위를 외국인으로 편입시켜 사할린에서 일본으로의 귀환 대상 국민 목록에서 지워버렸고, 새롭게 진주한 소비에트 당국은 사할린 상주 노동 인력 손실을 원치 않았다. 또한 당시 한반도에는 이들의 귀환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정부 기구나 기관이 부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할린에 살고 있던 한인들은 결국 한반도로 돌아오지 못했다. 냉전의 역사 속에서 약 1,7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고향(사할린 동포 다수는 경상도 출신)을 방문하거나 가족과 만나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한반도 남쪽과의 모든 연결이 끊긴 채 사할린에 남은 사람들은 소비에트 사회 일원으로 편입되어 50여 년의 시간을 보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페레스트로이카의 결과로 한-소 관계가 해빙되고, 왕래의 물꼬가 터지

1) 여기서 말하는 국경 밖이란 소비에트 시대 서구 대중음악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한 인류학자 알렉세이 유르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에트 문화 내부의 고립성과 세계성의 이상한 결합”(유르차이, 2019:304)에 가깝다. 사할린 한인들은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소비에트 국민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할린에서 멀지 않은 국경 밖의 일본이나 대한민국에 대해 “실재하면서 추상적인, 익숙하면서 이국적인 상상의 장소”(앞의 책:304)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한다.

기 시작했다. 마침내 1999년 한국 내 사할린 한인 동포를 위한 100명 수용 규모의 노인 요양원이 설립되어, 영주귀국사업이 시작되었다(배수한, 2010). 현재 사할린 영주귀국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임대아파트가 제공되고 생계급여가 제공된다. 다만 이러한 영주귀국사업 대상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이²⁾로 한정된다.

필자는 2012년 10월 9일, 한국연구재단 시민인문강좌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 만남과 나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할린 영주귀국자와 첫 만남을 가졌다. 이전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할린 영주귀국자 집거촌을 찾은 적이 있었지만, 연구자와 구술자라는 공식적인 관계로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후 두 번의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며 공동연구자로 사할린 영주귀국자를 포함한 다양한 역사, 문화, 언어적 배경을 지닌 70대 이상의 한민족 구성원(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일본, 독일, 아르헨티나, 북한과 남한 출신의 한국 국적자)과 16회에 걸친 협력적 구술생애사(the Collaborative Oral Life-Histories)를 진행, 수집,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³⁾ 필자를 포함한 공동연구진은 협력적 구술

2) 사할린 영주귀국사업 대상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며, 이들을 1세대로 규정한다. 또한 이 사업의 가장 시급한 대상은 1938년 이전 출생자 중 희망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적인 규칙을 정하고 귀국사업을 추진한 까닭은 ‘역사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한일 양국의 협조의 결과에 가깝다(김인성, 2011:287).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주귀국사업에 참여한, 1940년 전후로 사할린에서 태어난 이들은 실상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다양한 경로로 사할린에 정착한 1세대의 후손이라 봐야 한다. 정근식·염미경(2000)은 이러한 사할린 내부의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정체성 갈등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바 있다.

3) 본 연구진이 수행한 협력적 구술생애사는 남녀 참가자의 숫자, 국적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생애사 구술 대상자 5-8명을 선발, 한 자리에 모아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며 각자의 삶을 구술하고, 상호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참가자 개인의

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간 한국 사회가 규정해 온 ‘국민’ 구성요건의 공고한 폐쇄성과 배타성을 확인했다. 또한 식민지와 냉전 시기 동안 한반도 밖에 살았던 한민족 구성원이 상상했던 한국과 귀국 이후 경험한 한국의 이미지나 한국이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 등이 매우 유동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조일동 2015; 2020; 문현아·Park, 2016; 박준규, 2017; 최은영, 2020).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사할린 출신 영구귀국자의 구술생애사⁴⁾에 특히 주목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비)강제적으로 떠났던 부모 세대의 삶, 갑작스럽게 소비에트 국민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갈등, 개혁개방 이후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도, 기억하지 못하는 고향-한국으로의 영구귀국 경험까지 식민지와 냉전의 역사가 개인과 집단의 삶 전체가 뒤흔들리며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협

생애사 구술에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는 일반적 구술생애사에 비해 꽤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대신 모든 참가자는 서로의 ‘생애’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적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는 “‘사건’에 대해서는 덜 알려주고, ‘의미’에 대해서는 더 알려주는 구술사의 원칙”(Portelli, 1979/2006:36; 문현아·Park, 2016: 148 재인용)에 충실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협력적 구술생애사의 방법론적 특성과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조일동(2020)을 참조하라.

- 4) 총 16회에 걸쳐 진행한 협력적 구술생애사에는 총 82명이 참가했는데, 이 중 ‘사할린 영구귀국자’의 숫자는 총 19명으로 남성 9명, 여성 10명이다. 19명의 연령대는 1940년대 출생 6명, 1930년대 출생 12명, 1920년대 출생 1명이다. 이들 중 1920년대 생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사할린으로 이주하였거나 사할린에서 태어났다. 모두 일본어와 조선어가 혼용되는 상황에서 성장했고, 1945년 이후에는 러시아어와 조선어, 일본어를 혼용하며 생활했다. 참가자의 자녀 세대는 대부분 1960년 전후 출생자로, 가정을 제외한 학교생활이나 일상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성장했다. 참가자와 이들의 부모 세대 사이의 문화·언어적 차이도 존재하지만, 자녀 세대와의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참가자 전원이 자녀와 러시아어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었다.

력적 구술생애사가 진행된 이후 개별적으로 이들을 찾아 진행한 추가 인터뷰에서는 민족과 국민 정체성 사이의 갈등에 대해 듣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체성 정치의 소재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사할린 한인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전파월경(電波越境, Spillover) 라디오 경험이다. 기존 연구에서 전파월경 라디오 경험은 매우 단편적으로 언급된다(이장혁, 2011; 박재인, 2014). 필자가 만난 구술자들 역시 이러한 라디오 경험을 당연했던 일상처럼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월경은 지리적 특수성이 작용하는 아주 흥미롭고 특별한 경험이다.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즉 일제강점기에 유아기 혹은 유년기를 보내고, 갑자기 소비에트 주민으로 적응하라는 압력을 견디며 살아낸 세대에게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구성적 정체성에 가깝다. 월경하는 전파에 담긴 한국의 방송은 여기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했다. 나아가 변방에 거주하는 소비에트 국민의 처지에서 국경 밖을 상상하는데, 단속(斷續)적으로 경험하는 한국 라디오 청취 경험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질료가 되었다. 본 논문은 그간 소홀히 다루었거나 그 의미에 천착하지 않았던 사할린 한인의 전파월경 라디오 청취 경험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1960년대 냉전 시기부터 2010년대까지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에게 전파월경 라디오 경험은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아가 민족적, 국민적, 초국가적 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경험했던 사할린 영구귀국자와 한국 사이의 만남에 대한 독특한 두 사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1.1. 2014년 2월

2014년 2월 마지막 날, 필자는 연구프로젝트의 인터뷰 대상으로 처음 만났던 사할린 영구귀국자 서백기⁵⁾ 할머니로부터 공연 초대 전화를 받았다. 1935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북한지역을 거쳐 1948년 사할린에 정착한 그녀는 사할린 영구 귀국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A시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 노래패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현장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언제라도 노래패가 무대에 오르면 연락을 달라 부탁해 놓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막상 공연장소에 도착했을 때, 필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들이 공연할 무대는 예비시장후보의 자서전 출간 기념회와 출마 보고회를 겸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무대 뒤를 찾아가니 서백기 할머니와 같은 노래패에서 활동 중인 사할린 영구귀국자 할머니 세 명이 꽃분홍 한복과 붉은 립스틱으로 멋을 한껏 낸 채, 목을 풀고 있었다. 오늘의 무대가 어떤 취지로 진행되는 행사인지 넋지시 물었을 때, “우리 노래 선생님”의 부탁으로 왔을 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네 할머니에게 행사의 성격은 관심 밖의 일처럼 보였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노래를 자랑할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히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축하공연에 앞서 사회자는 예비시장 후보자가 해당 지역 시민사회에서 오랜 시간 봉사한 덕분에 세대를 초월한 지지를 얻고 있다며, 10대 초반 초등학생, 40대 초반의 시민, 그리고 80대 할머니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출마 선언 축하를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고 운을 띄웠다. 마침내 네 할머니는 “○○마을’에서 온 ‘A시 은방

5) 본 논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가명이다. 실명 사용 동의를 받은 이도 있으나, 현장연구 후 건강이 쇠해져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이도 있었기에, 전원 가명 처리하였다.

울자매”라는 소개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할머니들은 은방울자매가 불렀던 <마포종점>(1968, 지구레코드)을 첫 곡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A시 은방울자매’는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서로 마이크를 돌려가며 이어지는 두 곡의 노래까지 신명 나게 부르고 무대를 내려왔다. 행사의 타임라인은 촘촘했고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외에 자신들이 누구인지 설명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온 이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마이크 하나가 갑자기 고장 나서 평소의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다소 불만을 표하기도 했으나, “행사장에 사람들이 많”았음에 만족하고 있었다. 행사장에는 지역 인권활동가나 시민단체 사람들도 보였는데, 그 누구도 이 할머니들이 아무렇지 않게 <마포종점>을 부른 사실을 두고 놀라거나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 필자에겐 그 사실이 더 놀라웠다.

1.2. 2017년 5월

2017년 5월 19, 20 양일에 걸쳐, A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이틀간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학술대회 진행팀은 첫날 학회를 마무리하는 행사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인구가 도시 전체 인구의 10% 넘게 차지하는 A시의 특징이 드러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했다. 여러 의견 중 ‘A시 은방울자매’를 비롯한 사할린 영구귀국자 마을에 거주하는 음악패의 특별공연이 채택되었다. 이번에는 필자가 마을을 찾아 서백기 할머니를 비롯한 사할린 영구귀국 노인들에게 공연을 부탁드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학회장이 사할린 영구귀국자들이 겪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소개를 끝낼 무렵, 공연이 진행될 건물 앞마당 임시 무대에는 석양이 드

리우기 시작했다. 이윽고 에이 라인으로 떨어지는 김정 치마와 바지, 그리고 흰색 블라우스를 세련되게 차려입은 남녀 노인들이 학자들 앞에 섰다. 만돌린과 러시아 류트(발랄라이카)의 합주로 러시아 민요 몇 곡이 연주되었다. 객석 옆에 위치한 믹서에서 소리를 점검하던 필자의 귀에는 연주 중인 러시아 민요의 내용을 옆 사람에게 설명하는 목소리, 익숙한 이 멜로디가 러시아 민요였던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대화 등이 작게 들렸다. 네 곡의 연주가 끝나고 노래방 반주를 연상시키는 음악 소리에 맞춰 예의 분홍 한복을 차려입은 ‘A시 은방울자매’가 무대에 올랐다. 이날의 첫 곡은 라트비아의 민요에 심수봉이 가사를 붙인 <백만 송이 장미>(1997, 폴리그램)⁶⁾였다. 러시아에서 유명한 노래인데다 객석의 한국인을 배려한 한국어 가사 선곡이라 생각했는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어 <마포종점>을 위시한 트로트가 연달아 나오자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필자에게 “저 분들이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묻는 이도 있었고, “그래도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신 것 같아 다행”이라며 박수 치는 이도 있었다.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으나, 앞서 만돌린과 류트 협주로 연주한 러시아 민요에 대한 반응과 달리 ‘A시 은방울자매’나 은빛 양복을 입은 김청학의 트로트 독무대에 대해서는 다소 우왕좌왕한 모습이 느껴졌다. 마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처럼.

6) 이 노래는 라트비아에서 1981년 <Dāvāja Māriņa meitenei mūžiņu>라는 제목으로 불린 이래, 러시아 가수 Alla Pugacheva가 <Million Allyh Roz>(1981)로, 일본에서는 <百万本のバラ>로, 한국에서는 <백만 송이 장미>로 번안되어 소개되었다. 1996년 가수 임주리가 같은 제목으로 처음 취입 한 바 있고, 1997년 심수봉이 다른 가사를 붙여 발표하면서 크게 히트했다.

2. 월경하는 미디어와 정체성 정치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대중매체 경험이 재외한인의 민족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어떻게 이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후에는 사할린에 한인이 거주하게 된 역사를 간략하게 살피고, 냉전 시기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이 전파월경을 통해 수신하게 된 남한의 중파(AM) 라디오 방송 청취 경험 사례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듣고, 나누는 과정, 이후 변화, 또 이러한 변화를 일상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들의 행위와 그 속에 숨어있는 힘이 무엇인지 밝히게 될 것이다.

2.1. 디아스포라와 미디어

사할린 한인은 타의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몇 세대를 사할린에 정착하게 된 20세기의 디아스포라라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미디어 경험이 디아스포라에게 상실된 고향 혹은 민족 정체성을 상상하게 만드는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가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와 자본의 전지구적 확산과 정체성 정치에 주목한 아파두라이(Appadurai)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탈구를 이해하려면 에스노스케이프, 미디어스케이프, 테크노스케이프, 파이낸스스케이프, 이데오스케이프라는 다섯 가지 풍광(scape)이 만드는 유동적이고 비규칙적인 작동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스케이프와 에스노스케이프에 특별히 주목하는 아파두라이는 국민국가 국경 밖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미디어 경험만으로 현실과 유리된 원초적 혹은 원

리주의적 정체성을 구성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Appadurai, 1996). 아파두라이의 이론은 여러 현장연구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를테면 미디어를 통해 출신국가(문화, 민족)의 대중음악을 접하는 일은 고향이나 고향의 정서를 상상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체험되는 고향은 현실의 고향과 특별히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 상관없이 현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질료로 전용되기도 하고(Stock and Chiener, 2008), 출신국에서 향유되는 정서와 전혀 다른 저항적 각성을 촉구하며 상상 속의 애국심을 길어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Cambell, 2010). 같은 대중음악을 접하더라도 본국에서와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문화적 영용을 만들어내는 일은 전세계적으로 전혀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Guilbault, 2001; Zheng, 2010). 끊임없이 이동하며 초국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미디어(와 대중문화) 소비 경험을 국민/민족/종족정체성의 형성, 유지,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Stokes Ed., 1997; Cornell and Gibson, 2003; Wong, 2004). 본 논문 역시 사할린 한인이라는 디아스포라 집단의 미디어 경험과 정체성 정치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연구들이 만들어낸 흐름의 일부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기존 연구사례 대부분이 출신 국가나 지역, 문화, 민족의 대중문화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미디어 환경과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경험을 다룬 것에 비해, 본 논문이 다루는 사할린 한인의 사례는 냉전, 나아가 식민주의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장벽이 일상을 지배하던 시대 속에 펼쳐진 경험이라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특히 야간에만 청취가 가능한 전파 월경하는 AM 라디오라는 우연성의 경험이 디아스포라 정체성 정치

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심지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냉전의 질서가 재편되며 전과월경이라는 우연성의 가치가 바래게 되었음에도, 그 세대에게는 이 경험이 여전히 일상 속에서 일정한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본 논문이 소개하는 사례는 미디어와 디아스포라 정체성 연구사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할린 한인은 조선-일본-소비에트-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의 영구귀국까지 삶의 분기점마다 매번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과 조우해야만 했다. 이들은 삶의 한 지점에서 전과월경하는 미디어를 통한 불법/비법적 대중음악 경험을 집단적으로 형성했고, 여기서 발생한 의미를 변화하는 삶의 맥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2.2. 사할린으로, 다시 사할린 밖으로, 그들의 역사

1.1에서 살펴본 사례 속 예비시장후보 캠프가 ‘A시 은방울자매’ 할머니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한 정확한 까닭은 알 수 없다.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동포까지도 이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노년층에게도 호감을 얻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을 수도,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노렸는지 모르겠다. 할머니들의 공연이 그의 지지율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 밤 정치 행사를 찾은 후보 지지자 대부분이 생각하는 <마포종점>과 할머니들의 <마포종점>은 같은 노래지만 전혀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A시 은방울자매’가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을 두고 사할린 영국귀국자 공연에서 기대했던 음악 범주 밖에 있는 내용인 듯 당

황했던 학자들 모습도 그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학자들은 ‘A시 은방울자매’가 부른 <마포종점>이 발표되어 큰 인기를 얻었던 때가 한반도에서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으며, 당시 할머니들은 적성국 소비에트의 국민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들의 선곡이 어색하다고 느꼈던 것이었다.

‘A시 은방울자매’에게도 평범한 한국인 다수에게도 <마포종점>은 옛날 유행가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사할린 영구귀국자 할머니들에게 <마포종점>은 단지 짧은 시절의 추억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국적을 가진 조선인으로 사할린에 이주(혹은 출생)했고, 냉전의 풍랑 속에 갑자기 소비에트 국민으로 살아야 했던 사할린 동포들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부여잡기 위한 노력(여기에는 소비에트 사회가 내세운 규칙에 대한 위반과 저항도 일부 포함된다)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냉전의 중요한 한 축이자 정치·경제적으로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누리던 시절의 소비에트를 온몸으로 느끼며 젊음의 한 시기를 보낸, 그러나 소비에트의 주류였던 러시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의 시선을 감내했던 사할린 한인의 추억과 로망, 투쟁의 실천이 녹아있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할린 한인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인들은 언제부터 사할린으로 이주를 했을까? 이미 19세기 후반에도 연해주를 거쳐 사할린까지 이른 조선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거나(김계르만, 2005)⁷⁾,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 대부분은 1905년 러일 전쟁의 결과로 북위 50도 이남의

7) 김계르만(2005)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사할린 이주에만 방점을 두는 한국 학계를 비판하며 19세기 말의 이주는 사할린 개척사로, 일제강점기의 이주는 노동이주사로 구분해서 볼 것을 주장한다.

남사할린(가라후토)이 일본의 영토가 되면서 이주하게 된 이들의 자손이다. 1920년대 일본의 사할린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조선인 이주도 본격화되었다. 일본의 개발업체들은 높은 임금, 세계 혜택과 저리 대출 특혜 등을 홍보했고, 따라서 사할린 이주를 감행한 조선인 역시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고자 했다. 이후 1938년부터 1945년 사이 일제는 조선인 인력을 강제적으로 사할린에 집중 투입시켰다. 조선 출신 이주자 다수는 경상도 출신이었고, 석탄 광산, 벌목장 (후에는 비행장 건설), 어업 등에 종사했다(정하미, 2013).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일본호적에 등재된 일본국적자는 1946년을 시작으로 1957년까지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호적에 등재되었던 이들을 패망 즉시 외국인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 일본 국민도 소비에트 국민도 아닌 ‘무국적’ 외국인 되어 사할린에 남겨지게 되었다(노영돈, 1991). 이렇게 보면 같은 러시아/CIS 출신 한인이라고 하더라도 1937년 이후 소비에트의 인위적 강제 이주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로 옮겨간 연해주 출신 한인과 사할린 한인의 성격은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들의 귀환에 있어서도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은 “‘포스트소비에트적’ 일 뿐만 아니라 ‘포스트냉전적’”(신현준, 2013:165)인 반면, 사할린 동포의 귀환은 ‘포스트콜로니얼적’이면서 ‘포스트냉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평가할 수 있다.

1945년 일본이 물러나고 소비에트 당국이 사할린을 완전히 접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은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는 자치적 학교를 만들었다. 스탈린 시기였기 때문에 소비에트 당국 역시 이러한 한인의 민족활동을 특별하게 금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협력적 구슬쟁에서 참가자 중에는 사할린 조선인 사범학교 2기 졸업생도 있었다. 일본인들이 빠져나간 사할린의 노동력 부

족을 배우기 위해 소비에트 정부는 1946년부터 북한과 계약을 맺고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교과서나 교육자료가 사할린에도 전달되었다. 또한 북한 예술단이 사할린 방문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에서 온 예술단 활동에 자극받아 사할린 동포를 중심으로 한 ‘조선악단’이 만들어진다. 조선악단은 당시에 ‘조선노래’라고 일컬어지던 식민지 조선에서 만들어진 대중가요와 민요, 북한에서 새롭게 편곡된 (신)민요 등을 연주했다. 조선악단은 사할린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공연을 다닐 정도로 소비에트 전역의 한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이장혁, 2011).

조선인의 민족교육, 조선악단과 같은 민족정체성을 고취시키는 활동은 1953년 흐루시초프 시대와 함께 막을 내렸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보다 강력한 소비에트 국민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언어정책도 변화하여 공식석상에서 민족어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큰 틀에서 소비에트 시기 내내 진행된 언어정책의 불변적 요소는 범러시아주의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 혁명 직후 토착화로 대변되는 민족어 부흥정책이 레닌에 의해 추진되고, 스탈린 시기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했다. 조선인 사범학교와 민족교육에 대한 용인은 이러한 맥락 속에 자리해있다. 하지만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시대를 거치면서 소비에트의 언어정책은 러시아어 동화정책으로 강하게 선회했고, 범러시아주의에 기반한 소비에트 국민주의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유승만, 2008). 자연스럽게 소비에트 국적을 획득하지 않은 채 조선 땅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무국적자로 남아있던 조선인 다수는 흐루시초프 시기에 생활 전반에 걸쳐 타격을 입게 된다. 조선악단을 포함하여 조선인으로 구성된 정치, 사회, 문화적 단체 다수가 해체되었다. 1933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이옥남의 구술 속에서도 조선악단 해산과 함께 실직자가 된 남

편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흐루시초프 시대는 소비에트 경제 최대 호황기였고, 국민 정체성 강화와 유지를 위해 변방에 대한 지원이 대거 확대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이옥남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기억하며, 꺼내든 당시의 가족 휴가 사진은 동시기 한반도에서 누릴 수 없는 풍요로운 생활이 묻어난다. 멋진 수영장이 있는 휴양소 테라스에서 수영복을 입은 채 ‘샤슬릭’(러시아식 고기 꼬치 구이)과 맥주를 즐기는 가족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조일동, 2015).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은 1950년대부터 다양한 경로로 자신들의 처지를 일본 시민단체나 정부에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목소리가 처음 받아들여진 것은 1987년이었고, 마침내 1990년 일본의 사죄 표명과 함께 사할린 한인 중 한반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선언한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적십자사는 1세대에 한해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주귀국사업 소식이 사할린에 전해질 무렵인 1990년대 후반 사할린 한인 다수는 식민지 조선에서 사할린으로 이주를 감행한 이들의 자녀 세대였다. 사할린에서 태어났거나 유년기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사할린으로 이주한 이들은 한반도라는 공간과 대한민국 사회가 실상 체감되지 않았었다. 상상의 공동체이자 고향이었던 한국이 갑자기 현실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1세대라는 조건은 애매했다. 일제의 패망 이전, 즉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만 1세대라 인정한 것이다. 필자가 만난 이들 중에는 1923년 생으로 10대 시절 모집동원으로 사할린의 탄광으로 향했던 진정한 의미의 사할린 이주 1세대도 있으나 다수는 1930, 40년대에 태어난, 실질적인 2세 혹은 1.5세였다. 이들에게 한반도 남쪽은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의 대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처음 만

나는 낯섬으로만 가득한 곳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나를 한국 문화에 익숙하다고 여기고 있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이후 겪은 문화이질성을 경험하기 전까지 말이다.

2.3. 전파월경과 정체성 정치

이 논문은 필자가 연구자로 참여한 협력적 구술생애사 참가자가 건넨 한 마디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사할린 영구귀국 여성이 사할린에서의 삶을 얘기하다 “한국 라디오를 들었는데”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냉전 시대에 사할린서 적대국 한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다는 경험은 그 자체로도 신선했다.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그러한 경험에 대해 들어 본 바 있다는 진술이 다른 구술자의 입을 통해서도 등장했다. 연변 출신의 조선족 남성에게서도 비슷한 경험이 구술되었다. 이들의 경험에 대해 자세히 듣기 위해 필자는 개별적인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A시에 위치한 사할린 영구귀국자 집거촌을 찾아 노래패나 무용패에서 활동하는 친구를 소개받아가며 비밀리에 라디오를 청취한 경험의 여러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기존 연구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이장혁 2011; 박재인 2014).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 사할린에서 한국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키웠다는 정도로 해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냉전 시기 소비에트와 중국에서 남한의 대중음악을 라디오로 접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이 내용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모든 행위가 비밀스럽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라디오 청취와 공유 작업에 참여하면서 한인 혹은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였던

사할린 한인 커뮤니티 내부의 결속이 다져지기도 했다. 남한의 라디오를 중국 연변이나 사할린 등지에서 비밀스럽게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은 두 지역 모두 중파의 전파월경(Spillover: electric wave crossing a border)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파방송(AM broadcasting)이 가진 특징을 잠시 살펴보자. 중파는 전리(Sporadic) D층에 흡수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주간에는 중파는 1,000km 정도로 전파 도달 거리가 명확하다. 그러나 전리 D층이 얇아지는 야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고도 100~110km 높이의 전리 E층은 AM 주파수인 300~3,000kHz 대역의 전파를 반사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간이 되면 AM 방송은 최대 2,000~2,500km 거리까지 전파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의 경우, 다른 나라의 라디오 방송 신호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AM 전파 송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역으로 전 유럽을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영국의 BBC 월드는 야간 송신의 이점을 키우기 위해 밤 시간대에 고출력 방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을 상대로 대북방송을 송출하던 KBS는 1972년 “사회교육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채널화 하여 송출을 시작한다. 사회교육방송은 북한의 주민에게 자신들이 바라는 반응을 얻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의도된 메시지를 보내는 심리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조수진·김도연, 2020:179-180). 사회교육방송-현 ‘KBS한민족방송’은 AM 방송의 장점을 강화하여 야간에 고출력(주간 750kw/야간 1500kw)으로 송출을 하며, 북한과 일본 전역, 중국 및 러시아의 일부까지 방송이 도달한다. KBS한민족방송은 현재도 당진 기지국에서 AM과 단파방송을 송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7). 하지만 AM 방송은 전리 E층의 반사로 두 배 이상 먼 거

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파방해가 일어나 수신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전파의 전달 강도도 수시로 변한다. 따라서 야간이라 하더라도 송신소에서 2천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사할린 한인에게 소비에트 당국이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 이외의 다른 방송을 청취한 경험의 역사는 꽤 깊다. 1933년 부산에서 태어나 탄광 노동자 아버지를 찾아 1940년 가족 전체가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장한공은 일본이 몰러나고 소비에트가 완전히 사할린을 지배하지 못했던 혼란기에 일본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던 기억을 들려줬다. 장한공의 아버지는 해방 무렵 사할린을 떠날 준비를 하던 일본인으로부터 독일산 라디오를 입수했고, 덕분에 일본 라디오 방송을 집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 방송을 듣는 것은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 사이의 열린 비밀이었다고 한다. 그 누구도 일본 방송 청취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지만, 조선인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일본 방송을 집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흐루시초프 집권 이후, 이러한 낚새조차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서로 조심하게 되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송출하는 일본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장한공의 기억은 1954년에 끝이 난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아버지는 온가족의 국적을 (무국적에서 소비에트 국적으로) 변경했고, 대학에 합격한 장한공은 진학을 위해 사할린을 떠나야 했기에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사할린에 살고 있던 한인들은 소비에트 초기부터 국경 건너편의 주파수를 찾아 일본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음을 알았고, 이를 실천해왔다는 사실이다.

장한공은 사할린에 살고 있던 한인들이 “일본 라디오를 들으며

소련의 거짓선전에 속지 않았”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정책이나 사상과 무관하게 한국이나 일본의 유행가를 듣고 즐기는 사람들, 또 라디오를 통해 고향을 상상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갔다. 사할린 영구귀국자 마을의 노래패 구성원 대부분이 몰래 라디오로 한국의 유행가를 배웠던 젊은 시절의 기억을 토로한다. 일본 유행가(엔카)의 영향이 짙은 한국의 대중가요는 행진곡과 러시아 민요풍의 소비에트 노래보다 친근했을 뿐 아니라, 한글 가사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⁹⁾ 사할린 한인들이 라디오를 매개로 상상한 남한 혹은 고향은 실제 한국과는 특별한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소비에트에 거주하는 이가 한국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것은 요원한, 판타지에 가까운 일이었다. 갈 수 없는 고향은 더더욱 ‘상상 속에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상상된’ 고향의 노스텔지어가 가족과 헤어져서라도 한국으로의 영구귀국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분석은 일리가 있다(정근식·염미경, 2000; 안미정, 2014; 박재인, 2014).

8) 장한공의 생애사 구술은 2014년 8월 25일에 진행되었고, 라디오 관련 언급에 흥미를 느낀 필자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인터뷰를 하였다.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한국으로 귀환이주한 노인들의 구술에서 자주 발견되는 일 중 하나는 구술 내러티브에서 벗어난 갑작스런 반공주의 발언이다. 필자는 장한공의 발언에도 비슷한 사고가 저류한다고 여겨진다.

9) 이는 조선에서의 경험에 대해 전해들었던 기억이나 조선어/한국어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는 다음 세대가 월경하는 라디오 전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는 연결된다.

3. 월경하는 라디오와 ‘창가노트’

3.1. 월경하는 미디어 경험의 축적, ‘창가노트’

이제 본격적으로 <마포종점>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흐루시초프 정권은 소수민족의 민족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같은 시기 북한의 대중음악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52-3년의 남로당계 숙청과 함께 남도민요와 판소리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던 소위 조선민요에 대한 비판이 일제히 시작된 것이다. 조선민요가 남도소리에서 한반도 전역의 음악으로 소비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도입된 녹음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결과물이었다. 남도 지역과 다른 가창과 곡조의 민요체계를 가지고 있던 한반도 북쪽에도 SP음반의 보급과 함께 남도 특유의 셋소리와 호소력을 가진(당시의 가창자 대부분은 권번의 기생들이었다) 민요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북한 정권 내부를 완전하게 장악한 김일성 정권은 봉건적 계급성이 반영된 창법이라며 남도소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대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유럽식 오페라 요소 역시 북한 대중음악 안에서 제거하기 시작했다. 조선민요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음악의 완성을 주창하면서 탁성과 셋소리, 꺾임 등 남도식 창법은 봉건적 복고주의로 몰아 점차 없애나갔다. 이렇게 탄생한 북한의 혁명가요는 곡 구조와 연주 형식은 러시아식 행진곡의 요소를 반영하되, 가창은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던 서도민요에 기초한 맑은 진성 중심으로 변했다(천현식, 2013).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북한 대중음악은 사할린 한인의 정서와 조우하기 어려웠다. 협력적 구술생애사 참가자 중에는 북한 혁명가요가 “소리만 질러대서 싫다”고 이야기하는 이를 만나기

도 했다. 그의 구술을 풀어보면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가성과 탁성을 오가며 꺾어대는 ‘맛’이 북한 혁명가요에 없다는 의미에 가깝다.

사할린 동포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경상도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들이었고, 이들의 민요 취향은 경서도 민요보다 남도민요에 가까웠던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유행했던 엔카 혹은 엔카와 닮은 조선유행가 역시 사할린 한인의 음악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필자 역시 연구과정에서 엔카를 일본어로 멋들어지게 부르는 이를 여럿 만난 바 있다. 사할린에서 조선악단을 결성, 활동했던 이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음악교육을 받은 이들이다. 일본을 통해 들어온 미국식 (일본)악곡에도 익숙했다. 이러한 당대 식민지 조선의 대중음악 환경을 고려해보면, 앞서 언급한 이옥남의 사별한 남편-조선악단에서 활동했던 아코디언 연주자 박진수가 생전에 수기로 정리해둔 악보집에 미국 민요나 유럽 클래식을 채보한 노래가 한국 민요의 숫자보다 많다는 사실도 자연스럽다.

정리하자면 1950년대 중반 무렵, 소비에트 내부는 물론 사할린과 왕래가 가능했던 한반도 - 사회주의 국가 북한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사할린 한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대중음악을 향유할 길이 상당 부분을 막혀버린 상황과 마주한 것이다. 월경하는 일본 라디오 방송을 몰래 청취한 경험에 대한 회고를 고려하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자신들에게 익숙한 대중음악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AM 라디오 방송 속 남한 가요-트로트를 즐겨듣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¹⁰⁾ 다만 800km 거리의 일본 홋카이도 송

10) 1950-60년대 한국의 트로트 작곡가 다수는 일제강점기 고등음악교육을 받은 이들이며, 일본에서 이식된 세련된 작곡 기교를 선보였다(전지영, 2005: 165-167).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이주하거나 태어난 이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한국 트로트 사이의

출 방송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두 배 이상 떨어진 한반도 남쪽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일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낮에도 전리 D층이 얇아지곤 하는 겨울철에는 한국 라디오 전파월경을 포착할 수도 있겠으나, 보는 눈과 귀가 많은 시간대에 이를 대놓고 청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적잖은 사할린 영구귀국자들이 한밤에 몰래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던 기억을 토로하는 것인지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월경해 넘어오는 주파수를 붙잡을 수 있는 라디오 보급이 늘어난 데에는 민족어, 민족문화 활동을 제한한 흐루시초프 정권의 정책이 한 몫을 했다. 흐루시초프 정권은 소비에트와 사회주의 체제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경공업 분야의 확대, 주택계량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사상적 검열을 강화했다. 라디오 보급을 적극적으로 늘렸으며, 라디오 방송은 사상 강화와 체제 승리 홍보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소련과 중국은 모두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소수민족을 위한 지역 방송(표준어 교육 및 체제 강화 및 홍보 수단으로)에 단파방송(short wave radio)을 적극 활용했다. 폭넓은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단파방송 라디오(단파방송 라디오는 보통 중파 밴드를 포함하고 있다)의 보급 역시 월경하는 방송을 수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소비에트의 사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급한 라디오를 이용해 적성국인 한국에서 월경하는 라디오 주파수를 찾아듣는 일은 매우 위험한, 때로는 치명적인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행위였다. 월경하는 라디오의 약한 전파, 기상이나 주변 환경에 따른 간섭, 이웃과 주변의 시선, 일상이 된 비밀경찰의 감시 등의 이유로 편하게 라디오를 감상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친연성은 추정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한국 라디오는 전파가 잡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조금씩 청취가 가능했다. 따라서 서사로 연결된 사연이나 드라마처럼 말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에 비해 음악은 잠깐씩,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간에 끊기더라도 즐기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었다.

당시 라디오를 통해 몰래 들었던, 혹은 들은 내용을 토대로 친지들과 나누었던 노래로 사할린 동포들이 손꼽는 곡은 앞서 언급한 <마포종점>과 김세레나의 <새타령>, 박일남의 <갈대의 순정>, 이미자의 <눈물이 진주라면> 등이다. 모두 1960-70년대 발표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다시 말해 AM 라디오 방송을 통해 쉽게 들을 수 있던 트로트이다. 이들 노래가 당대의 한국 대중음악 안에서도 복고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 언어와 문화 활동을 제지시킨 소비에트 당국의 압력과 북한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혁명가요의 낯섶에 당황스러웠던 사할린 한인에게 복고적인 트로트(일제강점기의 대중음악과 닮은)는 상대적으로 쉽게 익숙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시로 잡음이 끊고 끊어지곤 하는 월경하는 라디오 전파를 찾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형태의 노래가 동포들 사이에 전파되기 수월했다. 사람들은 몰래, 조금씩 들은 가사를 노트에 적어가며 노래를 배웠다. 한 곡을 통째로 여유 있게, 또 반복적으로 들을 수 없던 사람들은 들리는 만큼,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가사를 적었다. 한 줄을 적을 수도 있고, 단어 몇 개만 겨우 적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조각조각 잘린 가사와 멜로디는 다른 한인과 만남에서 다시 재조립될 수 있었다. 공식적인 민족 활동이나 모임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결혼식, 장례식, 회갑연 등의 모임까지 통제할 순 없었다. 혼자 끼적였던 토막 난 노랫말은 다른 사람의 기억, 메모와 만나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노래로 완성되어

갔다. 이렇게 조합된 한국 대중가요를 잔치에서 부르며 춤추는 것은 사할린 조선인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회갑연은 손으로 가사를 필사하는 모임이자, 필사하며 멜로디를 이어 붙이고, 함께 부르며 연습하는 자리였다.

사할린 영구귀국자들은 이렇게 손으로 적은 가사 모음집을 ‘창가노트’라 부른다. 노래를 부르기 위한 노트 정도의 의미리라. ‘창가노트’는 노래 가사를 단번에 필사한 책이 아니라 가사를 나누고 함께 한국어로 된 노래를 가창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소비에트 체제 속에 사는 한인이라는 민족 정체성 또한 재조합/재구성 되었다. 동시에 한국어(조선어)를 모르는 다음 세대와 구별되는 어른의 또래문화이기도 했다. 그렇게 모은 가사를 담은 ‘창가노트’는 단순한 가사집이 아니라 1930-40년대 생 사할린 한인의 정체성을 함의하는 상징적 장치가 되었다. 한국으로 영구귀국길에 오르며 낡고 험은 노트를 한 장 한 장 다시 필사하여 새 ‘창가노트’를 만든 이도 있다. 수십, 수백 번을 부르며 가사가 아무리 입에 붙어도 ‘창가노트’는 다른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러시아에 자식과 손자를 남겨두고 부부 혹은 홀로 한국행을 선택한 이들에게 이 노트는 가장 치열하게 삶을 헤쳐 가던 각자의 짧은 시절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2. 외부에 대한 상상을 연행하는 ‘창가노트’

대중음악을 포함한 모든 음악은 인간의 청각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소리 중에서 특정 음들을 선별하여 재구성한 특별한 소리의 체계라는 점에서 문화적 구성물이다. 음악은 글이나 영화, 사진 등 여타 매체와 달리 구체적인 상(image)이나 명료한 서사구조를 가지

고 있지 않다. 개별 문화마다 각각의 음악 체계 속에는 그 자체의 논리적 구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것도 연행(performing) 혹은 재생(playing)되는 동안에만 청각을 통해 감각적으로만 인지된다. 화음, 음계와 같은 음악 논리의 구성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 문화마다 무엇을 음악이라 볼 것인지, 어떤 음악을 좋은 음악이라고 평가할 것인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50년대 이전까지 한반도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향유하고 있던 음악을 북한 당국이 나서 작/편곡, 가창, 구성 방식까지 뒤바꿔 혁명가요를 만들어 낸 점, 나아가 그렇게 급격하게 탄생시킨 음악이 수십 년이 지난 현재 북한 대중음악의 당연한 미학으로 자리잡은 현실은 음악이 얼마나 문화적인 실천이자 장치인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의 노래에 대한 음악적, 사회적, 문화적 평가나 가치, 의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악은 연행되는 시간 속에만 존재할 뿐이며, 연행 혹은 재생과 같은 행위를 통해 감각적으로 재현될 때만 그 가치가 부여되는 특별한 문화적 ‘상태’인 것이다. 음악을 음반이나 악보와 같은 물리적인 존재로 이해해서는 음악이라는 문화적 실천이 가진 특수성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창가노트’는 가사의 기록일 뿐이다. ‘창가노트’의 핵심은 ‘창가노트’를 둘러싼 경험을 매개로 사람들이 음악이 ‘연행’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스몰(Small)은 음악 행위를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데 한정하지 않는다. 연주에 비해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온 공연 관람, 따라하기, 나아가 음악을 매개로 사회적인 관계(팬덤, 민족 모임 등)를 형성하는 시도조차 음악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음악을 연주 혹은 재생을 뜻하는 “to music”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musicking”으로 이해해야, 사회문화적 산물로

음악을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포착해 낼 수 있다(스몰, 2004:25-33). 스몰의 용어 ‘뮤지킹(musicking)’은 음악을 사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도전하는 것으로, 음악을 명사 혹은 고정된 실체로 기술(description)하는 과정에서 음악적 텍스트와 경험이 생산하는 사회적 행위를 재발견하게 만든다. 뮤지킹 개념의 등장 이후, 음악이 가진 연행적 성격에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했으며 특히 음악이 사회적 실천(특히 사회운동과 사회교육)으로 확장되는 사례를 해석하는데 주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고야, 2007; Gaztambide-Fernandez, 2011). 나아가 특정 음악 장르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포착하고 해석하는데도 영향을 끼쳐왔다(Walser, 1993; Miller, 2012).

이후 음악학자들은 음악의 생산과 소비를 “하나의 통일된 음악으로 인식하기보다 단속적인 부분의 집합으로 인식”(카츠, 2006: 58)하는 경향이 있다. 작곡가나 음악가가 음악에 대한 권위를 독점하는 사고방식은 기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악보나 음반과 같은 사물로서의 음악만을 놓고 분석하기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쿡, 2004). 왈저(Walser)는 스몰과의 대화를 통해 (대중)음악을 단지 생산과 소비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에게 “(a) 음악은 사물이 아니며, (b) 음악은 당신이 사용한 - 혹은 당신이 음악을 사용했다고 생각한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으며, 이제 “예술을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행위로 이해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왈저는 스몰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음악은 사회적 의미의 교환과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으로 봐야만 한다”(Walser 1993: xii)고 주장한다. 그는 음악을 둘러싼 사회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난무하는 다양한 대중음악 스타일과 장르 속에서 노래의 의미를 식별해내는 실천 과정에서 개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성격

이 드러난다고 본다.

사할린 한인들이 몰래 ‘창가노트’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한국에서 월경하는 전파 속 노래를 연결해가며 부르면서도, 북한에서 건너온 어떤 다른 노래에 대해 같은 감정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음악이 사할린 한인 공동체의 공동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있어 좀 더 결정적인 무엇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즉, 사할린 한인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멜로디 구조와 음계, 가창방식, 편곡 방법 등이 1960-70년대 북고적인 한국 트로트 음악 속에 담겨있었다는 얘기다. 사할린 한인의 취향은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특별한 시공간 속에서 문화적으로 학습된 결과물이다. 1920년대 말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1세대들이 즐기던 음악과 1960-70년대 월경하는 라디오 전파를 통해 듣게 된 트로트 음악은 형식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1.5 혹은 2세대 구성원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들으며 갖게 된 음악 취향과 닮은 노래의 파편을 희미한 라디오 소리 속에서 모으고, 함께 노래하게 되었다. 사할린에 살고 있던, 러시아어보다 조선어가 익숙하고, 일제강점기 엔카와 민요, 자스송 등을 어른들 어깨너머로 들으며 성장한 이들에게 자신의 일터나 학교에서 접하는 소비에트 음악은 새로운 공부의 대상이지 익숙하고 편안한 음악이 되어주지 못했다. 만일 이들에게 월경한 전파를 통해 잡음과 함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음악적, 사회적 환경 속에 어떤 식으로건 적응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지 모른다.

필자가 만난 70대 이상의 영구귀국자들은 하나같이 소비에트적 삶으로의 힘든 적응 경험을 토로한다. 갑자기 소비에트 국민이 되고, 러시아어와 소비에트식 삶을 강제 받게 된 이들에게, 이전까지 당연하게 익숙했던 문화적 취향과 조우하는 경험을 밤이면 파편적

으로나마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집합적인 정동(affection)을 이끌어 낸다. 이 정동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한 언어, 이데올로기, 설득에 의해 집합적으로 행동하지 않”(이토, 2016:177)게 만든다. 다시 말해 창가노트를 만들고, 노래를 함께 부르는 가운데 다른 조선인/한인과 관계를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이 모든 행위가 사할린 한인의 범러시아주의가 강조되는 소비에트 국민정체성 속에서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소비에트 국민/국가 정체성과 반드시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3. 민족정체성과 국경 밖에 대한 상상력

냉전 시기 소비에트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가사를 적어가며 노래를 나눠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월경하는 라디오나 창가노트, 남한의 노래를 불렀던 기억을 가진 이들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은 이 음악이 듣기 편했다고 말한다. 사할린에서 태어났건, 어린 시절 이주해왔건, 실질적으로 이주를 감행한 이들의 부모 혹은 조부모의 고향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상도 지역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한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친근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의 부모가 한반도 남쪽 출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창가노트 실천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소비에트 국민이면서도 다른 존재-한민족으로서의 정동을 이끌어내는 월경하는 전파 경험의 존재, 이를 연행케 만드는 창가노트의 제작은 소비에트 국민인 ‘동시에’ 민족적으로는 조선/한인이라는 양립 가능한 국민 정체성 정치를 만들어냈다. 이는 국민과 민족의 정체성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던 소비에트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

일 수도 있다. 이 경험은 다른 종류의 상상력을 도모할 수 있는 틈새이기도 했다. ‘창가노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대 한국 대중가요를 들으면 다시 편하고 행복해진다는 협력적 생애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939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조정자의 생애는 한계이자 가능성인 소수민족의 정체성 전략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사할린에서 유일하게 조선어를 가르치는 사범전문학교였던 조선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교편을 잡았음에도, 조정자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족한 고급 러시아어 능력, 조선인 여성이라는 지위는 의대 진학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북한행을 결행하여 함흥의대를 마치고 의사자격증을 획득했다. 함께 북한으로 이주했던 남편이 수영 사고로 사망하면서 그녀는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북한에서 획득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하바롭스크 의과대학에서 6개월 연수 후 방역소 의사로 일하게 된다. 러시아어 능력의 한계를 민족정체성을 이용해 북한 함흥의대로 우회하고, 북한 국적 획득에 대한 압력은 소비에트 시민권을 사용하여 피했다. 다층적 민족/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 효과적으로 구사했던 것이다.

‘창가노트’의 존재도 비슷한 관점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고향을 잊지 않거나 향수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제로 재구성한 것이다. 러시아어나 소비에트 문화에 대한 부적응이 드러나는 맥락에서는 민족정체성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고, 민족보다 국민정체성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냉전 시기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월경하는 라디오 속 한국은 실제 대한민국과 특별히 관련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오히려 “1950~196년대에 온갖 종류의

상상의 세계들이 소비에트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출현할 수 있었”고, 이러한 외부 문화의 접촉이나 여기서 생겨난 상상력은 “열심히 일하는 ‘정상적인’ 소비에트 청년 대다수”의 외부로 향한 “자신의 관심을 정상화 할 수 있었다”는 유르차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유르차, 2019:538). 세계주의를 표방한 소비에트 사회에서 사할린 동포들의 월경하는 라디오 경험은 불법/탈법의 영역이되, 일탈과 탈선이 아닌 건강한 소비에트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작용도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으로 돌아와 <마포종점>을 자연스럽게 부르게 만드는 문화자본의 역할도 수행했다.

4. 나오며

88서울올림픽을 통해 상상의 고향은 이제 실체로 변하기 시작했다. 1990년 7월 한국 가수로 구성된 사할린 위문공연단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공연을 펼쳤고, 이는 MBC를 통해 한국에도 중계되었다. 냉전을 관통하며 사할린 동포들이 품어온 판타지-고향이 현실에 존재하는, 나아가 사할린에 강제로 잔류 된 지 45년 만에 고향이 한인을 찾아온 마법과 같은 순간이었다. 필자가 만난 모든 사할린 영구 귀국자는 이 공연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도 전해 들었던 내용을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구술했다. “이 기억을 전하며 목소리가 떨리던 이도 있었다. 트로트 가수 중심으로 이뤄진 공연단 역시 자신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10만에 가까운 관객 앞에서 함께 울었다고 기억한다”(조일동, 2015:46).

이러한 상상의 고향이 현실이 된 사할린 영구귀국자 중 상당수가 현재 A시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사할린 영구귀국자 마을-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 중심에는 관리실, 양로원과 여러

복지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대부분이 80대인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무용교실, 미술교실, 풍물교실 등이 열린다. 자발적으로 사할린에서 부르던 노래를 다시 부르는 노래패가 조직되었고, 이들은 꾸준히 모여 연습을 지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소비에트 시대에 아코디언 연주자로 활동했던 박진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노래패는 그의 사망 이후, 만돌린과 러시아인 류트 연주가 가능한 이들이 반주를 하며 노래 연습을 이어갔다. 그러나 주로 남성인 악기연주자와 가창을 열심히 하는 여성 사이의 음악적 취향 차이 등으로 현재 노래패는 다소 분열된 상태다.

그래서 ‘A시 은방울자매’ 같은 여성 노래패는 노래방 기계를 이용해 연습하고 있다. 외부에서 온 주부노래교실 교사의 자원봉사로 새로운 노래를 배우기도 한다. 노래패의 연습을 지켜보다 보면 흥미로운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다. 노래방 기계에 없는 러시아 민요나 일본 엔카가 심심치 않게 흐르는 것이다. 거기에 최신식 노래방 기계의 화면에 가사가 나오고 있음에도 가방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창가노트를 꺼내 가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 여성의 낡은 창가노트에는 노래 가사 위에 4-5자리 숫자가 파란색 볼펜으로 적혀있다. 노래방 기계 속 그 노래의 번호다.

사할린과 러시아에 남은 가족과 헤어져 상상의 고향-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영구귀국자들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차별과 마주한다. 나름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해왔다고 하지만, 일본어와 러시아어 단어가 혼용되고, 러시아식 액센트가 섞인 이들의 한국어는 일반적인 한국인과 대화에 소통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진다. 어려서 집안에서는 조선어를, 초등교육은 일본학교에서, 고등교육은 러시아어로 받았고, 러시아인과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냉전 시기

사할린에서 조선인이라는 민족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한국어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만도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인들은 특유의 말투를 듣는 순간, “어디서 오셨어요?”라며 경계부터 한다. 일부는 한국에 정착하면서 러시아어와 일본어, 한국어를 모두 일정 수준 구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보려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기초생활연금 수급자인 이들은 자신의 언어능력을 경제행위와 연계하는 순간, 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A시의 사할린 영구귀국자들은 오늘도 ‘창가노트’를 꺼내 들고 노래를 부른다. 이 ‘창가노트’는 이제 더 이상 고향이라는 판타지로 민족 네트워크로 엮어주거나,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해주는 장치가 아니다. 대신 한국이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가족과 헤어져 홀로(혹은 배우자와 단둘이) 남은 노년의 사할린 영구귀국자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오늘을 견디게 만들어 준다. 식민주의와 냉전의 역사는 지역 역사에서 문혀 괄호쳐져 버리고 세계화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버렸다고 평가된다(권헌익, 2013:34). 권헌익은 그러한 역사 인식이 식민과 냉전을 관통해 살아낸 이들의 삶과 경험 속에서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얼마 남지 않은 사할린 한인의 창가노트는 냉전 시대에 월경하는 전파가 만든 유산에서 역할을 마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조직하는 현재진행형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현익. 2013. 『또 하나의 냉전 -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이한중 역. 민음사.
- 스몰, 크리스토퍼. 2004. 『뮤지킹 - 음악하기』. 조선우 · 최유준 역. 효형출판.
- 신현준. 2013.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재한고려인들의 월경 이동과 문화적 실천들」, 신현준 편. 『귀환 혹은 순환: 아주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 그린비.
- 유르차, 알렉세이. 2019.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김수환 역. 문학과지성사.
- 이장혁. 2011. 「사할린 귀환동포의 디아스포라: 안산 고향마을의 에스닉 코리안」, 정병호 · 송도영 편. 『한국의 다문화공간』. 현암사: 133-166.
- 이토 마모루. 2016. 『정동의 힘』. 김미정 역. 갈무리.
- 전지영. 2005. 『근대성의 침략과 20세기 한국의 음악』. 북코리아.
- 천현식. 2013. 『북한의 가극 연구』. 선인.
- 카츠, 마크. 2006. 『소리를 잡아라』. 허진 역. 마티.
- 쿡, 니콜라스. 2004. 『음악이란 무엇인가』. 장호연 역. 동문선.
- Appadurai, Arjun.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ampbell, Sean. 2010. “Displaced Sounds: Popular Music-Making among the Irish Diaspora in England” Ed. Lebin, Erik and Florian Scheduling. *Music and Displacement*. Maryland: The Scarecrow Press. pp. 89-104.
- Connell, John and Chris Gibson. 2002. *Sound Tracks: Popular Music, Identity and Place*. Oxon: Routledge.
- Guillbault, Jocelyne. 2001. “World Music”. Ed. Frith, Simon, Will Straw and John Street.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p and Roc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6-192.
- Portelli, Alessandro. 1979/2006. “What Makes Oral History Different”. Ed. Robert, Perks and Alistair Thomson, *The Oral History Reader, Second Edition*. London

- and New York: Routledge. pp. 32-42.
- Stock, Jonathan and Chou Chiener. 2008. "Fieldwork at Home: European and Asian Perspective". Ed. Barz, Gregory and Timothy Cooley. *Shadows in the Fiel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08-124.
- Stoke, Martin Ed. 1997. *Ethnicity, Identity and Music: The Musical Construction of Place*. London: Bloomsbury Academic.
- Wong, Deborah. 2004. *Speak it Louder: Asian Americans Making Music*. New York: Routledge.
- Walser, Robert. 1993. *Running with the Devil: Power, Gender, and Madness in Heavy Metal Music*. Wesleyan University Press.
- Miller, Kiri. 2012. *Playing Along*. Oxford University Press.
- Zheng, Su. 2010. *Claiming Diaspora: Music, Transnationalism, and Cultural Politics in Asian/Chinese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2. 논문

- 고야 준코. 2007. 「음악하기를 통해서 본 국악교육 : 초등학교 음악교과시간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0(2): 171-195.
- 김인성. 2011. 「사할린 한인의 한국으로의 재이주와 정착분석: 제도 및 운용 실태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4: 279-301.
- 노영돈. 1991. 「사할린 韓人の 歸還問題에 관하여」, 『人道法論叢』 10: 219-236.
- 문현아 · Park Christian Joon. 2016. 「사할린 디아스포라 한인의 초국적 경험과 의미 분석」, 『구술사연구』 7(1): 137-186.
- 박재인. 2014. 「낮선 고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이산 트라우마의 단면 - 고향을 떠나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C의 생애담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60: 31-69.
- 박준규. 2017. 「IRB와 구술사 연구윤리: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7(2): 133-161.
- 배수한. 2010.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거주실태와 개선방향: 부산 정관 신도시 이주자 대상으로」, 『국제정치연구』 13(2): 281-310.
- 안미정. 2014. 「부산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이주와 가족」, 『지역과 역사』 34:

317-359.

- 유승만. 2008. 「소비에트 언어정책의 이론과 실제」, 『러시아연구』 18(2): 141-165.
- 정근식 · 염미경. 2000.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재외한인연구』 9: 237-280.
- 정하미. 2013. 「사할린연구의 전개와 ‘樺太’ 자료 : 인구조사와 가라후토청 경찰자료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94: 249-269.
- 조수진 · 김도연. 2020. 「민간 대북방송 출현 이후 대북라디오방송의 변화」, 『한국소통학보』 19(1): 177-215.
- 조일동. 2015. 「영구귀국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균열 : 경기도 안산시 고향 마을 사할린 동포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37: 31-59.
- _____. 2020.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 생애사 과정에서 드러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국민과 민족 경계 연행에 대한 분석」, 『현대사화와다문화』 10(1): 1-30.
- 최은영. 2020. 「협력적 구술생애사를 통한 이해와 연대: 초국가적 한인의 젠더와 가족을 중심으로」, 『현대사화와다문화』 10(1): 191-224.
- Gaztambide-Fernandez, Ruben A. 2011. “Musicking in the city: Reconceptualizing urban music education as cultural practice”. *Action, Criticism, and Theory for Music Education*, Vol. 10(1), pp. 15-46.

3.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7. 『지상파 AM 라디오방송 효율화 정책방안』. 방통융합정책연구보고서.

Multilayered Identity Practice and Popular Music Experience in Spillover Radio:

Sakhalin-Korean Permanent Returnees' National, Ethnic and
Transnational Imagination and the "Trot" Music

Ildong Joe

(Assistant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paper analyzes the meaning of identity politics and imagination outside the borders formed by the experience of listening to popular music through spillover radio propagation of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revealed in an anthropological research of Sakhalin-Korean permanent returnees. Most Sakhalin-Korean moved to Sakhalin as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fter the defeat of Japanese imperialism in 1945, they were classified as stateless foreigners and became Soviet residents without the chance returning to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 War, no exchanges took place between Korea and the Soviet Union. Many of the first-generation Sakhalin-Koreans who have chosen to return to Korea permanently are talking about their experiences of listening to Korean popular music through spillover radio waves. Listening to Korean radio during the Cold War was an open secret among Sakhalin-Koreans, and this practice led to establishment of an imaginary home-Korea, as another world outside the Soviet border.

Songs delivered on Korean radio wave, which could only be heard weakly at night, had always been partial. The Sakhalin-Koreans tried to combine of fragmented lyrics and melodies. And they experienced collective affection in the process of singing them together. The Korean music they enjoyed at that time was trot, which resembled the music enjoyed by Koreans in Sakhalin until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ethnic identity formed by singing Korean lyrics together in the middle

of the Cold War was more of an imagination than actual Korea, thus it did not conflict with the Soviet national identity. Even after returning to Korea, they still enjoy the songs they sang during these days. Now the practice of these songs is linked to the achievements and memories of their prime of youth in the Soviets.

Key words : Sakhalin-Korean Permanent Returnee, Identity, Spillover, Radio, Trot music, Imagination

논문 투고일: 2021년 4월 15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1년 5월 1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15일